

6

석재가공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

성별	남성	나이	59세	직종	석재가공직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□사업장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,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,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□사업장내 석재 절단작업 시 1m 이내의 지점에서 95dB, 3m 지점에서는 93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이질환

4 유해인자

물리적 요인(소음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,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,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역치(6분법) 우측 48dB, 좌측 39dB로서,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.

6**고찰 및 결론**

근로자 ○○○는 30여 년간 석재절단 및 가공작업에 종사하면서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